



체벌로 상처받는 교실

학생 청소년 체벌 왜 계속 벌어지나?

2006. 8. 19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57-856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01 TEL : (02)2667-0471, 0874 FAX : (02)2667-0479
www.koreayouth.net E-mail : ncyokway@chol.com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 회의」

제8회 청소년 대토론회

학생 청소년 체벌 왜 계속 벌어지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

체벌로 상처받은 교실

- 학생 청소년 체벌 왜 계속 벌어지나? -

때 : 2006년 8월 19일(토)

곳 : 한국스카우트연맹 대강당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

청소년 인권박람회

- 인격자이별 습득 및 인권 침해 청소년 상담 -

(토) 오후 8시 30분 : 10000 : 10000

청소년 상담센터 : 10000

호남대학교 청소년상담센터



진행 순서



시 간	프로그램	세 부 내 용	장 소
14:00~15:00	○ 도착 및 접수	<input type="checkbox"/> 참가자 등록	
15:00~15:10	○ 개 회	<input type="checkbox"/> 개회사 및 축사 <input type="checkbox"/> 사회자 : 장영혜신월청소년운영위원회 대외교류팀장	
15:10~16:40	○ 발 제	<input type="checkbox"/> 발 제 - 주 제 : 체벌로 상처받은 교실 - 발제자 : 최나한호남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회의 의장	
16:40~16:50	○ 토 론 I	<input type="checkbox"/> 토 론 I - 체벌금지는 학생인권 보장이며 교육개혁이다 - 과학석/학생청소년인권운동 사랑방 이수나로	
16:50~17:00	○ 토 론 II	<input type="checkbox"/> 토 론 II - 그만 때리세요 - 이아라/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 위원	
17:00~17:10	○ 휴 식	<input type="checkbox"/> 휴 식	
17:10~17:20	○ 토 론 III	<input type="checkbox"/> 토 론 III - 체 벌 - 전상룡/동덕여자고등학교 연구부장,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17:20~17:30	○ 토 론 IV	<input type="checkbox"/> 토 론 IV - 유순덕/경기청소년상담센터 소장	
17:30~17:50	○ 자유토론	<input type="checkbox"/>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7:50~18:20	○ 폐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청소년!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 ※ 11일 전남 장흥 J초등학교 50대 여교사가 학생들이 스스로 뺨을 때리게 하는 ‘이상한 체벌’ 을 강요.
- ※ 14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한 아이의 이름을 넣어 노래를 개사한 후 아이들에게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함.
- ※ 21일 전북 군산시 S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은 이모(53, 여)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남자 어린이를 교단으로 불러내 뺨을 때리고 얼굴에 책을 던짐.

7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일어난 체벌에 관한 사건들입니다. 1998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었지만 교사의 체벌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많은 학교에서 ‘상벌점제’ 를 도입했지만, 일관성이 없어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부터 사고방식 속에 내재되어 있던 체벌에 대한 인식이 현재까지 ‘사랑의 매’ 라는 낯설지 않은 말로서 교육의 일환으로 체벌의 정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벌이 학생들의 반항심리를 조장하여 오히려 교육의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사의 감정이 앞서 학생을 체벌함으로써 교육의 올바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이 타율적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고, 무분별한 체벌로 인해 상처받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힘인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교육 능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 8기는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 학교 내에서의 체벌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 서로간의 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대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부디 교사와 청소년의 의사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며,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여 의사소통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19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신 홍 기

체벌로 상처받은 교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 8기 부의장 권용경, 민정혜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에서는 벌써 제 8회 대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회의에서 개최하는 대토론회에서는 청소년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토론의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가까워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체벌이 교육의 일환으로 정당하게 행해지고 있고,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벌에 관한 사건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상황과 심리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아 무분별한 체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체벌문제에 대해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되었지만 청소년과 교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체벌이 청소년의 교육과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서 청소년과 교사, 심리전문가 분들을 모셔놓고 체벌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의사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체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의 의사소통의 차이를 조금이나마 좁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5년 8월 19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 부의장 권용경, 민정혜



_ 차례 _

>> 우리는 누구인가?	_ 9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소개	
· 청협 청소년회의 8기 소개	
· 청소년 대토론회 발자취(1회~7회)	
>> 체벌로 상처받은 교실에 대한 문제 제시	_ 17
· 체벌로 상처받은 교실 (최리나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 의장)	
>> 토 론 I	_ 27
·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이며 교육개혁이다(곽형석 / 학생청소년인권운동 사랑방 이수너로)	
>> 토 론 II	_ 31
· 그만 때리세요(이아라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 위원)	
>> 토 론 III	_ 36
· 체 벌(전상룡 / 동덕여자고등학교 연구부장,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 토 론 IV	_ 45
· 체벌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유순덕 / 경기청소년상담센터 소장)	
>> 자유기고 - 체벌에 대한 위원들의 생각	_ 49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_ 60
>> 청협 청소년회의 위원명단	_ 6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소개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목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활동배경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약칭 : 청협)는 1965년 12월 8일 국내 15개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자발적인 협의체로 창설되어 청소년문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 관련 행정부처와 유관 사회단체, 각급 학교, 그리고 세계의 청소년기구와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 및 지도자들을 위한 연합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6년 8월 10일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orld Assembly of Youth : WAY) 가입에 이어, 1972년 8월 15일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sian Youth Council : AYC)의 창설멤버로 가입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속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며 범국가적 연대를 통해 청소년운동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모색해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헌장의 제정 등 청소년정책을 추진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1988년 11월 11일 특수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현재는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주요연혁

1965	12월 8일 창립총회 개최(15개 회원단체 가입)
1966	8월 10일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AY) 가입 (제6차 총회)
1967	6월 1일 청협 소식지 창간 6월 29일 사회단체 등록(당시 문교부)
1972	4월 24일 사단법인 국가개발청년봉사회 병설(1977년 흡수) 8월 15일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YC) 가입(창립총회)
1986	3월 15일 월간 '오늘의 청소년' 창간
1987	11월 28일 '청소년육성법' 제정(제18조 설립근거 규정 명시)
1988	8월 23일 사단법인 설립총회 개최(29개 회원단체 가입) 11월 11일 사단법인 승격(당시 체육부)
1990	5월 12일 '청소년헌장' 제정 선포식 개최
1991	12월 31일 '청소년기본법' 제정(제25조 설립근거 규정 명시)
1992	1월 1일 '청소년의 해' 지정, 운영
1995	5월 29일 제7차 AYC총회 서울 개최(AYC 회장국으로 피선) 12월 8일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청협활동 30년' 발간)
1999	2월 12일 23개 신입회원단체 가입 (60개 회원단체) 8월 31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2000	7월 26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국제청소년센터 개원 12월 31일 2개 신입원단체 가입(62개 회원단체)
2001	2월 1일 워킹홀리데이지원센터 운영 12월 18일 인터넷 홈페이지 전면개편 (http://www.koreayouth.net)
2002	2월 25일 "청소년을 칭찬합시다"의 해 선포식 2월 28일 "청소년이 희망입니다"의 해 선포
2003	4월 22일 제1차 임시총회 개최(제22대 박현성 회장 선임) 현재 62개 회원단체 활동중
2004	'청소년기본법' 개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 (청소년기본법 제40조 설립근거 규정 명시)
2005	2월 25일 제40차 정기총회(23대 회장 : 김석산) 9월 8일 법인설립 허가(국가청소년위원회 법인허가 1호) 12월 현재 74개 회원단체 가입 활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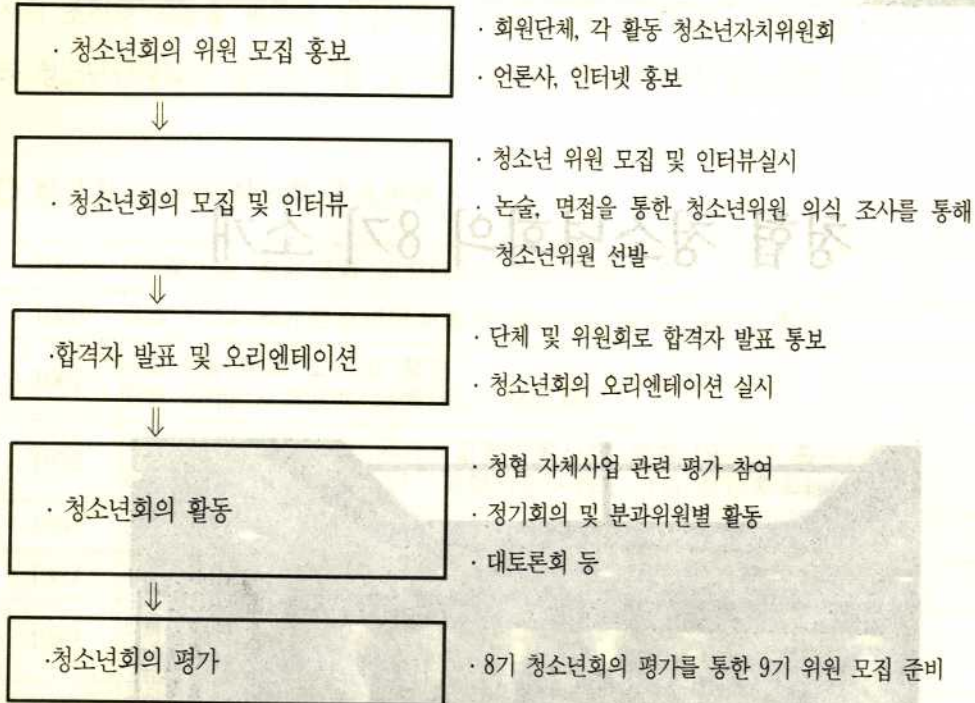
청협 청소년회의 8기 소개



◎ 구성목적

- 청협의 정책적 방향 수립과 사업의 기획, 평가 과정에 있어서 청소년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각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자치활동의 구심점 역할
- 청소년들의 공식적인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자율적인 참여기회의 확산으로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 유도
- 기존 회원단체 중심의 활동에서 일반 청소년자치위원들의 참여 기회 확대

◎ 구성절차



◎ 2006년 주요활동

일시	내용	비고
06. 3.	○ 제8기 「청소년회의」 위원모집 및 홍보	
06. 3.	○ 제8기 「청소년회의」 위원 선발	
06. 4.	○ 제8회 청소년회의 워크숍· 정기총회	
	○ 분과위원장 선출 및 임명 ○ 제8기 리더십 캠프 (국가정보원 공동주최)	
06. 5.	○ 청소년 박람회 모니터링	
	○ 위원 간 친목 소풍 ○ 정기회의 개최 (남산 미지센터)	
06. 6.	○ 정기회의 (신촌 민들레영토)	
06. 7.	○ 정기회의 (남산 미지센터)	대토론회 준비
	○ 국제 청소년광장 모니터링	
06. 8.	○ 아시아 초청 캠프 모니터링	
	○ <체벌로 상처받은 교실> 대토론회 개최	

청소년 대토론회 발자취(1회 ~ 7회)

<제1회 청소년 대토론회>

- 주 제 : 우리 오늘 할 얘기 왕 많아요
- 일 시 : 1999. 5. 1
- 장 소 : 중소기업 여의도 종합전시장(신지식청소년 육성대회장)
- 참가인원 : 500명(청소년 및 지도자)

<제2회 청소년 대토론회 - 새천년맞이 청소년 대토론회>

- 주 제 : 21세기의 희망 청·소·년 그리고 학교
- 일 시 : 1999. 11. 18(목), 13:30-17:30
- 장 소 : 국립민속박물관 1층 강당(경복궁내)
- 참가인원 : 300명(청소년 단체 활동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학교 교사, 학부모, 정부관련 공무원, 청소년 및 교육 관련학과 대학생 등)
- 목 적
 - 사회의 모든 영역에 청소년들의 자율적 사회발전 참여와 주인의식을 고양하고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참여의 장 마련
 - 청소년들의 창의력 향상과 잠재적 욕구를 발현시켜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학교공동체문화 형성
 - 새 천년, 새 사회, 새 학교 문화 만들기에 청소년들이 주체가 밝고 활기찬 사회분

위기를 조성하고, 창조적 지식국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능력을 배양

<제3회 청소년 대토론회>

- 주 제 : 청소년보호법, 이대로 좋은가?
- 일 시 : 2001년 11월 17일
- 장 소 : 보이스카우트회관 10층 대강당
- 참가인원 : 150명
- 목 적

- 청소년보호법의 실제조사를 통한 미비점 등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보완사항 파악 -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사회참여를 촉진
- 청소년의 자유로운 의사발언 기회를 통하여 건전한 토론문화를 유도

<제4회 청소년 대토론회 - 1318들의 이야기 한판>

- 주 제 : 새 시대 청소년정책, 우리가 말한다!
- 일 시 : 2003년 1월 16일
- 장 소 :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10층 대강당
- 목 적

- 대통령선거에서 수립된 청소년정책공약의 향후 실질적인 입안추진
-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하기 위한 청소년의 역할 및 자세에 대한 방향모색
-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활동을 위한 예산확보와 행정지원 방안 모색

<제5회 청소년 대토론회 - 2004 청소년 대토론회>

- 주 제 : 청소년이 바라보는 학벌문제
- 일 시 : 2004년 1월 10일
- 장 소 : 한국의 집 민속극장

○ 목 적

- 학부모의 의식개혁과 명문대를 바라는 기업들의 새로운 사고와 같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개혁
- 특성화된 학교교육을 실시하여 기본적인 교양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의 각기 다른 특성을 살려서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학교 신설의 당위성
- 선발과정의 통제 장치로서의 기능보다는,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 하였던 지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수학능력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대학 입학제도의 개선 필요

<제6회 청소년 대토론회 - 인권축제>

- 주 제 : 청소년 인권관련 4가지 테마(18세선거권/학내종교자유/청소년노동인권/학교폭력)
- 일 시 : 2005년 1월 8일
- 장 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
- 목 적

-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의 변화 유도 및 청소년 인권증진 도모
- 청소년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수준 제고의 기회
- 문화행사를 통한 청소년들의 참여 유도과 관심 증대
- 청소년자치활동 위원들간의 정보교류 및 발전적 네트워크 구축

<제7회 청소년 대토론회>

- 주 제 : 청소년 없는 청소년 시설
- 일 시 : 2005년 12월 27일
- 장 소 : 대학로 홍사단 대강당
- 목 적

- 청소년회의 위원들의 자율적 참여와 권익 증진
- 청소년 인권신장과 자치참여 활동 확산
- 청소년 시설에 관한 청소년들의 전국적 공론형성

체벌로 상처받은 교실

- 학생 청소년 체벌, 왜 계속 벌어지나?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 의장
최리나

1.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여교사가 공책을 던지고 얼굴을 때리면서 체벌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알려진 뒤 체벌에 대한 관심들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다. 전에도 체벌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널리 알려져 왔지만 이번 동영상은 뉴스에서 보도 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체벌문제 뿐 아니라 급식과동, 사교육비 문제 등 여기저기 사건이 터지는 것들이 청소년 중 가장 많은 학생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인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문제가 많음에도 관심이 없던 것들이 뉴스에 한번 보도되자마자 갑자기 관심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슬프다.

체벌은 많은 청소년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인식되어져 무

관심속에 상처는 커지고 또 커져 결국 오늘날 뉴스에서 하이라이트 기사로 다루는 내용까지 되어버렸다.

필자도 초·중·고등학교 시절 학교는 단체생활이라는 이유로 한 친구의 잘못으로 인해 받은 체벌로 상처받은 적이 있었는데 수일동안 멍이 들어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에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 이처럼 체벌은 체벌을 받는 그 순간뿐 만 아니라 생각보다 긴 시간 받는 수치심 그리고 평생 남는 가슴속 상처를 견뎌내야 하는 가혹한 벌이다.

이런 가혹한 벌을 꼭 우리 학생 청소년들이 받아내고 견뎌야 하는 것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2. 체벌이란?

- * 사전적 정의 체벌 : 體罰 [명사]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함. 또는 그런 벌.
- * 벌의 하위개념으로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제재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으로 고통을 주는 강화의 일종이다(이광우, 2001).
- * 교육적 차원에서의 체벌은 교사나 다른 교직원이 승인되지 않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강대교, 2002).
- * 교육학 대사전에서는 “학업이 부진하거나 금지되어 있는 일을 범하였을 때와 같은 경우에 때리거나 세워두거나 식사를 시키지 않는 등의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을 가함으로서 격려한다든가 그 비행을 교정하려는 방법”(정원식, 1991)

=> 체벌은 이렇게 다양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말 그대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벌로 해석할 수 있다.

3. 체벌의 실태

국민일보 2006-07-14

서울지역 중·고생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잘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서울지역 중·고생 779명과 교사 202명, 학부모 179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의식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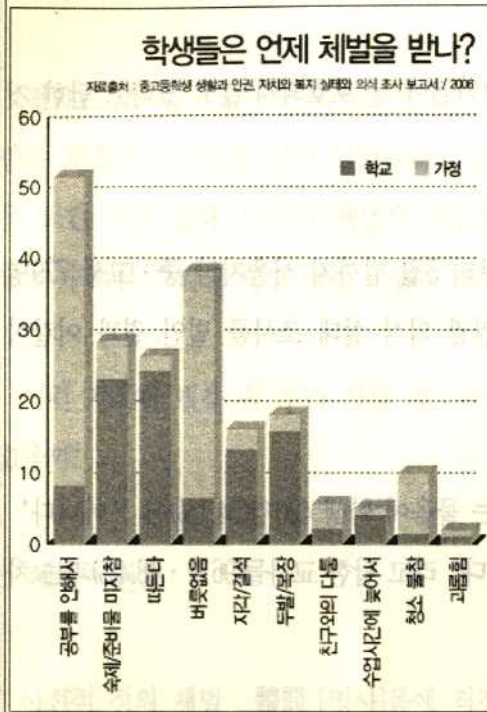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호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학생 420명(54.1%)이 ‘아니다’ 혹은 ‘매우 아니다’ 라고 답해 ‘어느 정도 그렇다’ 라고 답한 교사들(96명·48.4%)과는 차이를 보였다.

(중략)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의 체벌에 대해서는 779명 중 397명(복수응답)의 학생들이 체벌을 인권침해로 생각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202명 중 66명(복수응답)만 인권침해라고 답했고 교사 22명은 체벌이 ‘인권침해가 아니다’ 라고 답해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식 차이를 드러냈다. (중략)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위 기사에서 나타나듯이 체벌에 관한 인식차이는 생각보다 큼을 알 수 있다. 직접 체벌을 받는 학생 청소년들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체벌을 행하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기사내용에서 학교 안에서 학생 청소년과 선생님간의 소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교의 아픈 현실이 보인다.



[프로메테우스 최승덕 기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당할 때 가장 인권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생 78.7%는 집과 학교에서 체벌당한 적이 있다.

청소년, 인권 침해 인식하나 개선의지는 적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수도권 중·고등학교 재학생 2412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7%가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당할 때' 가장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중략)

반면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에 비해 개선의지나 학생 자치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학생회에 대해 관심있다'는 응답이 22.7%인 반면 '별로 또는 전혀 관심없다'는 응답이 77.3%에 달했다.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58.2%가 동의했으나 모르겠다는 대답도 31.8%나 됐다. (중략)

체벌 감소 추세...학교는 느리다

가정에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55.7%로 나타났지만, 학교에서의 체벌에 대한 경험한 학생은 78.7%나 됐다. 아직도 5명 중 4명은 학교에서 맞는다는 이야기다. 체벌 정도에 대해서는 학생 17.7%가 가정 체벌이 지나치다고 했으나 학교 체벌에 대해서는 43.1%가 지나치다고 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중략)

이번 조사 결과의 특징은 최근 학교와 가정 모두 체벌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학생의 경우 학교 체벌이 줄었다(32.7%), 똑같다(51.4%), 늘었다(15.90%)고 응답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37.2%가 줄었다고 답한 반면 늘었다는 대답은 10.7%였다. 가정 체벌 빈도는 더욱 크게 감소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61.0%와 66.2%가 줄었다고 답했고 5.8%와 4.0%만이 늘었다고 대답했다.

한편 26일에 있었던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발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등 16개 사회단체가 참가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 출범식의 사전 행사로 치러졌다. (중략)
최승덕 기자(rhzyomer@prometheus.co.kr)

기사에서 보듯이 가정에서보다 학교에서 체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인권침해와 체벌에 익숙해진 청소년은 인식은 하고 있으나 개선시켜야 한다는 생각조차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더욱더 안타깝다. 이는 체벌이라는 악의 고리에 이미 익숙해진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사회와 가정이 변화하는데 학교의 변하는 매우 느려 학교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자료다.

아래 자료는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에서 1999년 3월 서울/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1. 체벌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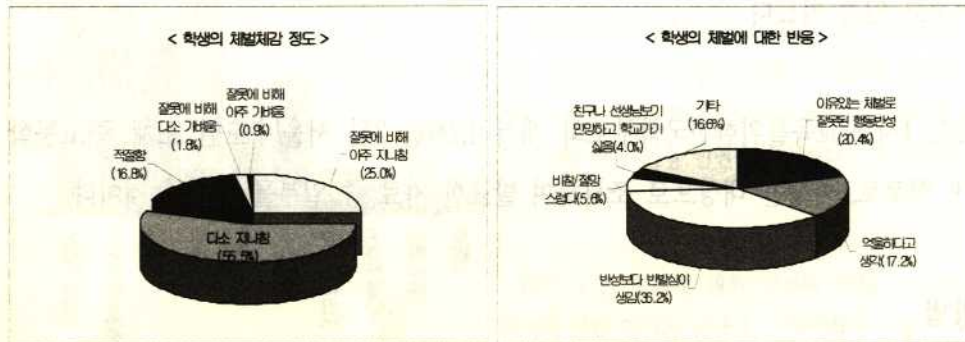
교사는 1명이 체벌을 하지만 대상은 다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사가 체벌을 한 경험과 학생이 체벌을 받은 경험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체벌 방법	교사 (%)	학생 (%)
자나 얇은 나무 때로 때리기	65.3%	86.8%
걸레자루, 몽둥이, 출석부 등의 도구로 때리기	14.8%	65.6%
따귀 때리기	6.3%	43.9%
머리 쥐어박기	20.4%	74.2%
원산폭격등 얼차레(기압)	4.2%	37.6%
친구들 끼리 서로 때리기 하기	0.7%	36.3%
장시간 무릎 꿇거나 손들고 서있게 하기	25.3%	74.7%
발로 차기	1.4%	32.3%
단체 체벌(단체 기압)	10.6%	79.4%
운동장 돌리기	6.3%	48.8%
오리걸음	14.8%	65.3%
기타	11.3%	17.8%

2. 학생의 체벌체감 정도와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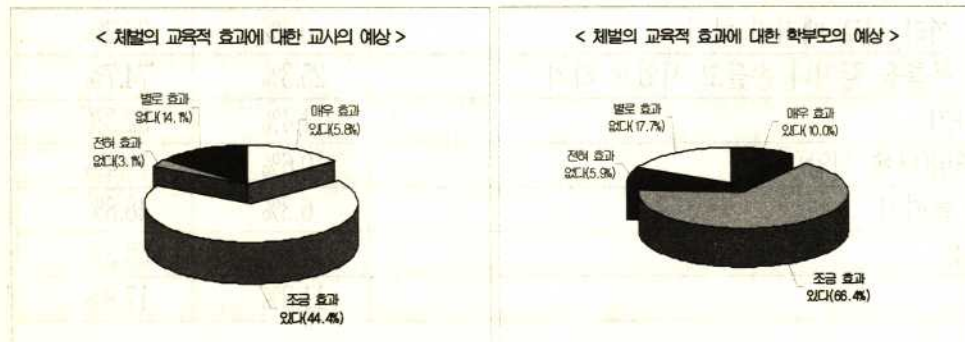
학생들은 체벌의 정도 대해 25.0%가 아주 지나치다는 반응이며, 55.5%는 다소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전체적으로 지나치다는 반응은 80.5%나 되었다. 반면 적절하다는 반응은 16.8%이며 가벼웠다는 학생은 2.7%에 불과하다.

체벌후 반응은 반성보다는 반발심이 생겼다는 학생이 3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성했다(20.4%), 억울하다(17.2%)고 생각하고 있다.



3. 교사/학부모 체벌의 교육적 효과 예상

교사는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82.9%가 있다(매우 효과 있다:15.4%+조금 효과 있다:67.5%)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76.4%가 있다(매우 효과 있다:10.0%+조금 효과 있다:66.4%)고 생각하고 있어 교사, 학부모 모두 체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단체기합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 청소년이 79.4%라는 것이다. 단체기합의 경우 아무 잘못도 없는 학생 청소년이 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 더욱더 인권침해가 심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체벌이 끝난 후에도 한 친구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사실에 교실 안에서는 잘못된 친구를 멀리하게 되는 2차적인 피해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매우 높다.

두 번째로 인권침해 사례라고 할만한 체벌들이 일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귀 때리기, 친구들 끼리 서로 때리기 시키기, 발로 차기 등의 체벌이 일부교사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창 예민한 청소년시기에 모멸감을 주는 체벌은 교육적이지 못하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2,3번 자료에서 보듯이 체벌이 어른들의(교사, 학부모) 경우 효과가 있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다수였지만 체벌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 청소년은 반성하는 생각보다는 반발심만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체벌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4. 감정적인 체벌?

내가 체벌을 받을 때에도 느꼈고 지금 많은 학생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체벌이 가장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선생님의 '감정적인 체벌'이다. 개인의 감정에 따라 때를 맞았기 때문에 더욱더 반발심이 커진다는 것이다.

인간은 지성의 동물이자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다. 밀림 속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한 욕구표현을 하지만 인간은 본능에 충실하기보다는 지성에 많은 지배를 받는다. 또한 그와 함께 절제가 이루어진다. 즉, 인간은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무조건 충실하게 살 수는 없다. 즉 인간 또한 자신들의 감정에 휘둘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회는 많은 사람들의 집합체이며 그만큼 온갖 생각들이 공존하는 복잡한 일상의 연속이다. 이러한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선 구성원 또한 복잡한 생각과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회의 복잡성은 한데 이루어져 사람의 감성까지도 흔들 수 있다. '선생님'이라는 존재 또한 이 사회 구성원임으로 다른 구성원과 같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에 절제력의 한계가 느껴질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욕구를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선생님을 감정도 못 느끼는 차가운 기계로만 보아서 안 된다. 정당한 체벌 이었다하더라도 사람이기에 감정이 들어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런 것을 보아서도 체벌은 올바르지 못한 교육방법인 것이다.

5.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모두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잘못에 대한 대가로 많은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벌이 바로 체벌이다. 하지만 체벌을 행하는 많은 선생님들조차도 체벌은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잘못을 했을 때 체벌이 아닌 벌을 왜 생각하지 못하고 그동안 상처가 깊어져 굶아 터질 때까지 참아왔던 것일까?

사실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체벌에 대한 대안책으로 상벌점 제도를 도입했지만 학생 청소년들이 아무생각 없이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결국 다시 매를 듣게 되었다고 하소연하는 선생님들도 계신다. 선생님을 무조건 탓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학생 청소년들도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드는 부분이다.

6.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는 잘못에 대한 벌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을 갖기도 전에, 잘못에 대한 벌을 그 어떤 다른 방법도 보지 못한 채, 체벌을 먼저 경험하게 된다. 학생 청소년들은 이것이 끔찍한 인권침해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체벌밖에 방법이 없을 꺼라고 믿게 되고, 체벌이 잘못되었다고 말조차 꺼내지를 못한다.

나 혼자가 아닌 다양한 친구들이 모인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그에 따른 벌이 필요한 것은 모두들 알고 있다. 그러나 어렸을 적부터 잘못을 하고 그에 대한 벌에 대해 아무 대안책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체벌이라는 가장 무서운 도구를 접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게 되어버렸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셀프체벌' (잘못한 행동을 글로 올리고 누군가 체벌을 지시하면 스스로 체벌하여 증거사진을 올리는) 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있고 이런 것으로 인터넷상으로 모임을 갖는 공간까지 생겨나면서 스스로 체벌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체벌이라는 악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얽매여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부작용으로 들어나고 있다.

우리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힘인 청소년이기 때문에 분명히 체벌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책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지금은 우리 청소년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훨씬 많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른도 있기에 함께 차근차근 맞추어 나간다면 스스로 체벌이라는 악의 고리에 얽매여 사는 체벌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체벌금지는 학생인권보장이며 교육개혁이다

학생청소년인권운동 사랑방 이수나로
곽형석

제 친구 학교의 한 영어 선생님은 시험이 끝날 때나 방학이 시작할 때, “열심히 하지는 의미” 라면서 전교생을 다 한 대씩 엎드리게 해놓고 때리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무의미하고 불합리한 체벌도 '교육적'이라는 이름하에 용인된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과연 '합리적인 체벌'은 용인되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최근에 NGOtimes 시민의신문에 난 기사 중에, 중학생들이 숙제를 안해 왔다고 자로 손바닥을 때리거나 하는 건 체벌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미하고 합리적인 체벌'은 과연 용인되어도 좋을까요?

체벌은 인권침해다

대한민국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인권침해 중 하나가 바로 체벌입니다. 체벌이 인권침해가 아니라구요? 아뇨 체벌은 그 자체로 분명한 인권침해입니다. 신체적 고통과

폭력. 이걸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소위 권위 있다고 빠기는 선언이나 조약 같은 걸 가지고 와볼까요? 세계인권선언은 “제 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체벌도 고문의 일종”이라고 끊임 없이 이야기해왔습니다. 덧붙여서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협약 조약기구는 1996년부터 체벌을 명시적으로 법적으로 엄금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유일한 방안을 선언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체벌을 정당화하는 법 조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의 장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곧, 불가피할 때는 때릴 수 있다.)까지 있으며 우리는 체벌을 하는 어른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들 앞에선 우리의 인권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군사 독재 시절을 거쳐 오면서 ‘잘못 했으면 맞아야 한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정과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이가 맞으면서 크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학교는 일주일에 한번 애국조희를 하고 두발을 규제하고 교복을 입히고 체벌을 하는 등 군사주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부당한 권력으로 체벌을 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만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적 효과?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체벌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사랑의 매라고 칭하면서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육적인 면에서도 체벌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체벌은 학생 개개인에게 심한 모욕감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이성적이나 감정적으로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체벌이라도 학생 개인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추억으로 간직되어야 할 학교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사나 학부모들은 교육적인 목적의 체벌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고 이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입니다.

교사들은 학생을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통제하기 위해 체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즉각적인 통제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체벌당한 학생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보다는 선생님의 대한 반감(반항)만 더 커질 뿐 아무런 교육적 효과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체벌을 통한 교육적 효과란 도덕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즉각적인 반응만을 유도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효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또한 체벌은 학생들에게 ‘경우에 따라 폭력이 합리화 될 수 있다’ 는 것을 잠재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으며, 권위자가 행사하는 크고 작은 폭력이 인간성 내부의 폭력적 성향을 키우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체벌은 잘못된 교육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억지 수단일 뿐,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체벌금지로 교육을 개혁한다

많은 사람들이 한 교사가 40여명의 학생들을 통제해야 하는 교육여건상 체벌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체제가 인권을 침해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다면 그 체제는 무너지거나 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사회교과서에 써있듯이, 사회의 존재 목적은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만일 한국 사회의 범죄율이 군사정권 당시 통금 있고 하던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
에 지금 통금을 도입해야 할까요? 싱가포르처럼 태형을 도입해야 할까요?

지금 국가는 국가가 교육권을 보장해주지 못하여 생긴 문제점과 폐해를 학생들에게 떠
넘겨서 체벌 밑에 신음하게 만들고 교사에게 떠넘겨서 체벌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
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국가가 인권보장이라는 자신의 책임
을 다해서 체벌을 금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체벌에 의해 비정상적이고 일그러진 교육이 억지로 유지되어 왔다면, 체벌금
지가 실현되어 교육당국이 체벌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잘못된 학생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하면서 교육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체벌금지
다음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적고 교사와 학생이 대화할 여유가 있는, 체벌이 행사될 여지
가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체벌의 법적 금지는 단순히 “국가경쟁력”을 위한 곳이 아닌 인간성과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교사와 학생이 모두 웃으면서 평등하게 인사할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지는 데에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만 때리세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 위원
이아라

1. 학생들의 상처들

“마구 때렸다” vs “30명 자로 한대씩 쳤다” 학생 구타 진위 논란보충수업비 미납을 이유
로 전교조 소속 교사가 학생들을 구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과문이 일어나고 있다.

<중략>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서울지역 중·고생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잘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들은 학교 측의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정을 가장 큰 인권 침해로 생
각했다.

<중략>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수학 시험을 못 봤다고 뺨을 맞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선생님한테 맞아 고막이 파열
된 중학생 최근 일부 학교에서 행해진 지나친 체벌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위에 기사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하는 행동은 체벌이 아닌 폭력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중학생 여자학생의 얼굴을 무참히 주먹으로 때린 남자선생님,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에게 잔인한 체벌 등등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비교육적행위를 사랑의 매의 이름을 빌어 학생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주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다.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라는 체벌이 분명 지금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실태를 보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종례시간이 길다하여 선생님을 때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체벌을 당했다고 선생님을 욕하고 차는 그런 행위가 늘고 있는데 학생들의 이러한 실태를 바로 잡기 위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하는 체벌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라는 체벌을 하고 계신 선생님은 과연 몇 명이나 계실까?

2. 사랑의 매 가 아닌 선생님의 주먹

우리학교에는 여자는 묶어서 15cm, 남자는 귀를 덮지 않고 뒷머리가 옷깃에 닿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각 시간 선생님들께 체벌을 당한다.

학생들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체벌을 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나 선생님의 시각으로 학생들의 두발을 판단하시고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실 때 정확하지 않은 시각으로 두발을 규제하셔서 학생들은 억울할 때도 있다. 어디서부터 귀밑 4cm인지 5cm인지 비록 몇 cm 때문에 억울하다면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그 몇cm로 인해 체벌 받는 학생들은 억울하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체벌을 당했을 때 그 이유가 대부분이 두발 규제로

인한 것이었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의 답변은 공부를 못해서 문제를 못 풀어서 등등 있었다. 또 그 외에 학생이 핸드폰을 신 기종으로 가지고 다녀 학업성적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또는 선생님이 맘에 들지 않는 학생과 사귀었다고 하여 등등 황당한 이유로 체벌당한 학생들도 있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질문 중 어떤 방식으로 체벌을 당하냐고 묻자 대부분이 회초리나 사랑의 매가 아닌 선생님의 손이었다.

역시 그 외에 황당한 체벌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신고 계시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거나 머리를 때리고 죽도로 어깨를 때리거나 이마를 때리시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대답했다.

선생님의 권력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지도력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이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에는 선생님의 상징 즉 선생님의 권력은 체벌이 아닌 폭력이다. 선생님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체벌 아닌 폭력에 잡혀 사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존경이 아닌 무서운 존재일 뿐이다. 선생님의 존경스런 모습을 본받아 공부해야하는 학생이 선생님의 폭력에 시달리며 공부를 한다. 매로 다스리는 체벌이 아닌 선생님의 주먹으로 다스리는 학교생활에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뿐이다.

3. 선생님과 학생의 벽

이러한 폭력들의 제일 큰 문제점은 폭력을 체벌로 위장해 가하였을 때에는 이 잘못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맞는 아이가 입는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상처는 교사와 학생간의 큰 벽이 생기고 학생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까지 남게 된다. 이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는데 체벌에 대한 효과는? 이라는 질문에 많은 대답은 단기간 효과를 보지만 지속적 선생님과 벽이 생긴다는 것! 권력이 상징인 체벌이 학생들과 선생님 간에 벽을 만들고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없게 만든다. 체벌을 막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대화일 터인데 늘어나는 선생님의 잔인한 체벌들이 대화의 입을 막고 있다.

체벌 후 생기는 일들은 선생님과 학생의 벽이 생기는 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다.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자발성이 떨어지고 자존심저하로 불안 우울증 증상을 보일수도 있다.

- 세이브 더 칠드런 (어린이 보호 재단) - 어린시절 체벌 받으면 87%가 성인이 된 뒤 같은 방식으로 체벌한다.
- 광금주 서울대학 심리학과 교수 - 자존심이나 자신감이 약한 아이들은 체벌후 열등감이 심화 등등..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선생님들의 격한 체벌, 폭력으로 아이들이 수렁에 빠질 수 있다.

4. 체벌에 대한 내 생각과 대안방법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체벌에 대한 나의 생각은 우선 첫 번째로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선생님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욱하거나 격한 마음에 실수로 학생을 체벌 할 수 있다.

잘못된 선입견으로 학생을 무조건적으로 체벌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 선생님은 학생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해결 대안은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대화로서 풀어나가야 한다. 학생의 잘못을 체벌로 다스리자 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대화로 다가가며 대화로 인도하며 대화로 학생과 선생님의 벽을 차츰 차츰 허물어 간다면 체벌의 문제점도 사라질 것이다.

체벌 없는 교실을 꿈꾸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체벌문제에 대한 대안은 지금 이 시간에도 체벌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상처 입게 하고 있다.

한사람의 의견으로 이런 체벌 문제점들이 사라질 수는 없다. 그러나 한사람부터 시작

하여 한 명, 한 명 모여 서로의 의견이 모이면 체벌에 대한 대안과 의견들은 많이 나온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체벌을 받은 적 없더라도 자신의 주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대안을 내세웠으면 좋겠다.

체 별

동덕여자고등학교 연구부장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전 상 통

1. 체벌의 어제와 오늘

지금까지 청소년에 대한 체벌은 ‘구타’ 라는 직접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의 매’ 라는 표현처럼 완곡하고 우회적으로 포장되어 왔다. 하지만 아무리 이러한 포장을 하더라도 체벌은 인권, 민주주의와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폭력행위임에 틀림없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19조), 아동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37조) 또한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8조 2항) 특히 청소년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들의 견해에 대해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2조) 그러나 체벌은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지도하려 들기보다는 청소년을 제압하고 통제하려 드

는 것이다.

얼마 전 군에 있는 아들 면회를 갔었다. 군대를 가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군부대의 배치가 학교와 매우 흡사한 것이 새삼스러웠다. 경비실(위병소)이나 운동장(연병장)이 전개되고 운동장(연병장)엔 조례대(지휘대)가 있고 그 배경에 막사(교사·校舍)가 줄을 지어 있다. 이것이 일제의 잔재인 학교이면서 군부대다.

이런 구조를 가진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다. 일제는 현대 교육을 도입하면서 일제군국주의를 교육현장에서 실현하고자 학생들에게 체복을 입히고 차렷, 경례, 총검술, 체식훈련 등등을 실시했다. 이 때 학생을 통제의 대상, 훈련의 대상으로 삼고 교육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우리 현대 교육의 출발이었다.

그래서 아직도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 일제침략, 태평양 전쟁, 미군정, 남북분단, 한국동란, 극단적 남북 대립, 군사독재 등등 격동적이고 혼란스런 현대사 속에서 참된 교육을 위해 정부나 국민이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던 현실도 무관하지 않다.

전통적으로 교육의 수단으로 회초리를 사용하는 것은 상식이었다. 김홍도의 <서당> 그림에서처럼 말이다. ‘교편(教鞭)을 잡다.’, ‘지도편달(指導鞭撻)을 바란다.’, 등에서 나타난 말의 의미에 채찍이 들어 있다. 수백 년 전엔 현대와 같은 자유와 개성과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아니었다. 그 시대는 봉건사회(封建社會)였고 남존여비(男尊女卑), 적서차별(嫡庶差別),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시대였고 “짐(朕)이 국가” 인 시대였다. 그 사회에 순응하는 인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현대는 시대가 너무나 다르다. 수직(垂直)사회에서 수평(水平)사회로 변했다. 남존여비나 장유유서의 시대는 가고 남녀노소 평등의 시대가 왔다. 자유와 개성과 인권의

시대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망각하고 과거 지향적인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인권보다 교육권을 앞세우며 체벌을 정당화하려 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대전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

최근 <스승의 은혜>가 개봉되어 세인(世人)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중 영화의 소재로 학교가 많이 등장해서 성공(?)적으로 돈벌이가 되고 있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 두사 부일체, 여고괴담 등도 학교의 체벌과 폭력, 비리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모티프가 되는 영화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 우리 교육 현장에는 아직도 시대착오적이며, 야만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가 횡행(橫行)하고 있다.

2. 왜 체벌을 하는가?

체벌은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이는 분명 교육적 목적을 전제로 한다. 나쁜 행동에 대한 수정에 체벌이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안 때리면 버릇이 없어진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효과는 <즉각적인 효과>가 전부다. 그 즉각적인 효과에는 성공적이라고 할지라도 즉각적인 만큼 효과의 소멸도 즉각적이다. 반면에 오래오래 많은 부작용이 남는다. 마음의 변화를 요체로 하는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교육의 목적은 민주주의와 공동체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을 길러내고자 함인데 체벌은 타율에 의한 방법으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결과적으로 같은 목적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체벌하지 않고 이를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야할 것이다.

그러나 체벌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목적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십상이다. 체벌은 교육의 방법 중에 아주 쉬운 방법 중의 하나다. 떠드는 아이를 때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성적 나쁘다고 때리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다. 나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때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적 효

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가가 할 일은 더욱 아니다.

전문가 연구에 의하면 체벌이 교사(부모)에 대한 적개심이나 반발심을 유발하며, 긍정적 행동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체벌의 경험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학습시키기도 하며 어린 시절 체벌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은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다른 일탈적 행동, 알코올 남용, 자살, 우울, 소외, 낮은 성취도 등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체벌이 없다면 교사의 권위도 없어진다?

교사의 권위는 체벌과 무관하다. 체벌에 교사의 권위를 부여하는 학생은 없다. 교사의 권위는 교육에 전념할 때 자연스럽게 서게 되는 것이다. 체벌하는 교사가 권위가 있다면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는가? 교사의 권위를 회초리에 의지하려는 자세는 유치하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의 부작용이 있어도 금지되는 약물에 비하면 체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관대하다. 수많은 부작용에도 당국이 허용하고 있고 사법적으로도 허용되는 판례가 있다. 이는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그릇된 학생관, (군사)훈련과 교육을 구분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부작용이 명백하고, 백해무익한 방법인데도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실정인데 이는 입시지옥과 더불어 우리 교육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3. 우리 나라 체벌에 대한 외부의 시각

우리 나라의 체벌은 유명하다는 생각이 든다. OECD국가 중 당국이 체벌을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오죽하면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도 한국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를 했겠는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 1. 31.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 견해를 다음과 같은 심각한 권고를 통해 한국정부에 보낸다.

(1) 권고 제38조... 본 위원회는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체벌이 유엔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본다.

한국 교육부의 지침이 학교에서의 체벌 사용과 관련된 결정을 개별학교당국에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정형태의 체벌이 수용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며, 따라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를 조성하려는 교육법 조치를 훼손하고 있다.

(2) 권고 제39조... 본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라.

b) 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동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공공 교육 캠페인을 수용하라. 그리고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 형태를 조성하라.

취약계층 학생의 표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부 지침과 학교교칙을 개정할 것,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할 것, 교사 등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것, 취학전 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할 것,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에 언급된 교육의 목적이 반영되도록 정부의 교육정책을 재고할 것 등이 권고의 주요내용이다.

4. 체벌의 대안은 관심과 칭찬이다.

우리 조상의 지혜를 빌리면 “미운 자식은 떡을 주고 고운 자식은 매를 준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고운 자식은 때려서 적극적인 교육으로 키운다는데 방점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고운 자식이란 사랑하는 자식을 말하고 사랑하는 경우엔 때릴 일이 없다. 이때는 사실 매를 달 일도 없지만, 매를 댄다고 해도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에 아무 문제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체벌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문제의 핵심은 사랑이 교육의 본질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 속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운 자식이다. 일반적으로 미운 자식이 체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미운 자식에 대한 조상의 지혜로운 방법은 떡이다. 체벌이 아니다. 미운 자식을 체벌하는 우리 현실에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다. 당장 실천해 보면 알 것이다. 수업 중에 말썽부리는 학생 불러다가 떡을 주어보라. 효과는 평생 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체벌의 대안은 떡이다. 사랑과 칭찬이다. 학생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없이는 교육도 없다.

여기서 잠시 우리 교육부의 지침을 살펴보자.

교육부가 제시한 예시안은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학교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정 체벌, 징계, 포상, 출결석, 복장 및 두발, 교외생활 내용 포함
- 체벌은 벌점기준 초과, 교사의 반복된 지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다른 학생이 없는 장소에서 제 3자가 배석한 상태에서 실시
- 대체벌 요구권 : 학생은 처벌 대신 다른 벌을 요구할 수 있고 벌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권과 권익보호 규정)

이 예시안은 체벌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좋은 방안이 많이 있음에도 어정쩡한 지침으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관료들의 보신주의가 드러난다. 또한 당국의 학생관이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해 진다.

교사나 학부모로부터 비난을 면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지 과연 교육적으로 최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다. 체벌이 가져오는 역기능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체벌은 제3자가 배석한 상태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학생의 자존심이나 인권은 무시되고 체벌로 인한 사고 예방에만 급급한 저급한 방법이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회복도 기대하기 어렵고, 교사의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이런 경우 차라리 선생님과 식사를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체벌금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면

학교

학교마다 교칙이 있다. 우선 이 교칙을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여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교칙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 교칙에 의해 교내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학생평가제라는 방식이 있는데 학생들이 교칙을 어길 경우 소정의 벌점을 부과하여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한다. 직접적인 체벌에 비하면 부작용이 매우 적다. 대체로 이 벌칙은 간접적 체벌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처벌 규정을 학생 스스로 정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또 그 내용을 응징보다는 선도의 규정(상담실적제출)으로 개선하여 교육적인 방식 즉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여 교육적 효과를 기한다면 좋을 것이다.

교사

진정한 교육을 한다면 칭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칭찬과 사랑이야말로 교육의 핵이다. 학생인권보다 교육권이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

기 위하여 체벌이 과연 효과적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을 한다는 이름으로 비교육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은 교사 스스로 교육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까? 사랑의 매라고 포장하지만 대부분의 매는 폭력임은 스스로가 알고 있는 바이다.

진정 사랑의 매를 옹호한다면 차라리 학생과 등산을 함께 하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동성이라면 목욕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학생과 교사의 신뢰 회복 없이 일방적 주장으로 되는 교육은 없다.

부모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독립된 인격체다. 우리 나라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의 분신으로 본다. 자신의 체면과 밀접하게 관련짓는다. 상담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일에 인색해선 안 된다. 교사와 학부모가 진지하게 협력한다면 우리 교육의 장래는 희망이 있다.

교육부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 중에서 규모가 큰 대형 학교를 없애는 것이 체벌을 없애고 진정한 인간존중의 교육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소규모 학교는 교사와 학생의 접촉면을 확대하여 인성교육과 인간존중의 교육이 가능하다. 수천 명의 학교에서 이름도 모르는 학생의 개성은 인정받기 어렵다. 전국의 모든 학교를 전교생이 500명 내외가 되도록 규모를 줄여야 한다. 집단으로서의 학생이 아니라 개별자로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학교규모를 대폭 줄여야 인성교육이 살아난다. 수천 명인 경우 일반적으로 질서 유지가 너무 힘들어 폭력(체벌)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높다.

5. 당부의 말씀

첫째, 체벌은 헌법, 교육기본법상에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인권은 어떤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상식을 널리 알려야 한다. 둘째, 체벌의 행사는 교사(부모) 스스로 본인의 잘못된 교육관과 지도력 부족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체벌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을 철회하고 교육적으로 백해무익한 체벌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대한 내용을 모든 교사 연수에 포함하여, 교사들의 잘못된 교육관, 학생관을 고쳐야 한다. 학생은 통제 대상이 아닌 사람의 대상으로서 존엄한 인격체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벌로 인하여 학생이 다치고, 교사가 다치고, 부모가 다치고, 학교가 곤경에 빠지는 비극적인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 확실한 체벌금지로 명랑하고 건강한 교육 풍토 조성에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다음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에서 해마다 5월5일에 체벌금지캠페인에 홍보하던 내용이다. 이 내용으로 전체를 마무리 한다.

<체벌도 폭력이다.>

체 벌	칭 찬
몸을 길들이는 무서운 통제	마음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조
오로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	서로 함께 생각해보는 자세
때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음	끈기를 갖고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보스기질을 배웁니다.	민주적 리더십을 키웁니다.
위협, 억압, 군대식.	친근함, 상호존중, 민주적
불안, 공포, 위축, 반발을 불러오죠.	자신감, 화목, 여유가 생깁니다.
아드레날린 증가	엔돌핀 증가
상하(수직)관계	평등(수평)관계
군주시대(과거)에나 어울리죠.	민주시대(현재, 미래)의 필수입니다
방관, 복종, 무책임(노예의식)을 키워요	참여, 주체, 자주적(주인의식)이 싹트죠.
통제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체로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명령: 협박, 폭언, 폭력, 응징	칭유: 칭찬, 격려, 존중, 이해
외적 변화 중시	내부 변화 중시
수동적, 소극적, 반항적	자발적, 능동적, 적극적
타율적, 권위적, 복종적	자율적, 민주적, 창의적
즉각 해결하기는 쉽긴 하지요.	교육적, 영구적, 긍정적
비교육적, 일시적, 부정적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에요.
부작용은 이루 셀 수 없이 많아요.	부작용? 전혀 없어요.

⇒

체벌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경기도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유 순 덕

최근 과잉체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토론자리가 마련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체벌에 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본 토론자는 과잉체벌로 인한 심리적 영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과잉체벌은 과잉체벌을 당한 학생뿐만 아니라 과잉체벌을 목격한 학생들에게도 정서적 문제를 보일 수 있다. 사실 과잉체벌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나 학생들 간에 이루어지는 폭력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장면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특성들을 토대로 과잉체벌에 관한 심리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폭력행위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울, 불안, 비행 행동, 친구관계 실패, 자기 비하, 열등감, 교사에 대한 불신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력을 떨어뜨리며, 정신적 외상은 성인이 되어서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1) 수치심 : 폭력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이런 수치심은 자신을 수용하고 자기의 가치를 중요시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두려움과 불안 : 언제 폭력이 일어날 지, 자신들이 교사의 폭력을 자극하지는 않을 지, 그리고 더 심한 체벌에 대해 불안하고 두렵다. 장기간 지속되는 높은 수준의 불안은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저해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의 삶에 걸림돌이 된다.

3) 폭력행동 :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 는 폭력의 순환이 이루어기도 한다.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나중에 폭력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이 폭력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회학습이론(Baundra, 1977)이 제시하는 몇 가지 개념들을 근거로 유추할 수 있다. 첫째, 폭력을 직접적으로 관찰한다. 둘째, 폭력행동의 모델이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부모이나, 교사의 영향력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폭력행위의 긍정적인 결과를 자주 목격한다. 사람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단순히 그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행동의 결과에 따라 모방행위를 결정한다고 한다. 폭력을 사용하는 교사가 학생을 통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폭력이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폭력은 직접적인 관찰, 모델의 효과, 긍정적인 결과들로 인해서 학습의 효과를 증대시킨다.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폭력을 적합한 행동양식으로 인지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해함으로써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4) 분노 : 폭력이 반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청소년들은 심한 분노를 느낀다. 이들은 폭력적인 교사뿐 아니라 폭력을 제지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력함에도 화가 나기도 한다. 따라서 과격한 행동, 만성적인 불복종, 반사회적 행동 등의 공격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5) 우울증 : 교사의 폭력은 자녀로 하여금 공격행동 뿐 아니라 소극적이고 과잉 통제된

행동을 일으키게도 하는데 그러한 반응이 무기력, 불안 또는 우울 정서로 나타난다.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목표를 정하기 어렵고, 성취하는 바가 적으며, 성취만족도가 낮다. 청소년의 우울 증상은 때로는 과격한 행동이나 분노로 표출되기도 한다(Mishne, 1986).

6) 갈등해결 기술의 부족 : 폭력 이외의 대안적이고 건설적인 갈등해결방법을 학습하지 못하면서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키지 못한다. 결국 이들은 비폭력적인 갈등해결방법의 긍정적인 결과를 관찰하기 보다는 폭력을 갈등해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기존연구들은 폭력을 사용하는 이들이 비폭력집단에 비해 갈등해결기술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7) 대인관계의 어려움 : 사회적 위축과 적극적으로 또래 관계를 피하기도 한다. 이들은 또래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쪽으로 예측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성인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대인관계 기피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8) 학교 적응의 문제 :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과 학교생활에 몰두하고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집중력과 사고능력이 저하되고, 초조하며,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지각이나 학교를 결석하고, 학습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고, 학교등교를 두려워하여 거부하거나 결국 학업을 중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에서 애착을 느끼지 못하고 그대신 학교 밖 인간관계를 추구하게 되어 학교 부적응을 낳을 수도 있다.

9)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을 수 있다 : 학생들 중에는 체벌로 행동수정이 되는 수준을 넘어선 학생들도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상태를 파악하여 체벌이 적절한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인지 구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학생들 중에는 성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교사로 하여금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무기

력상태에 빠지게 한다거나 모든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열등감을 자극하여 분노를 자극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체벌이 적절한 행동수정방법이 되지 않기도 하다.

예를 들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 이들은 정상 지능임에도 불구하고 부주의와 충동성, 과잉활동성이 지나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들의 경우 학교수업이나 혹은 다른 활동을 할 때 주의집중을 하지 못하고 부주의해서 자주 실수하며, 과제를 수행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집중 하는 데 자주 어려움을 보이며, 다른 사람이 앞에서 말할 때 잘 귀기울여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한 장소에서 끝까지 지시에 따라서 하던 일을 끝마치지 못한다.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고 손발을 계속 움직이거나 몸을 꿈틀거린다. 따라서 수업시간이나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닌다.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계속 움직인다. 이들은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놀이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필요한 대상인데, 체벌로 다루려고 하다보면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교육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되는 학생들을 스크리닝하여 의뢰하는 것이 교사가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사뿐만 아니라 가족, 또래, 전문가, 지역사회 등이 함께 개입하는 다중 체계적 접근으로 개입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겠다. 또한 체벌에 대한 세세한 매뉴얼을 만들어 교사들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체벌을 통해 교사들의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교사들 또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사 대상 상담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체벌에 대한 위원들의 생각

조희주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 동남고등학교 2학년 ■

엄격한 규칙으로써 학생들을 관리하는 관리주의교육을, 오래전부터 뿌리 깊게 행해왔던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으로 인해 우리에게 체벌이란 단어는 그리 낯설지 않다. 공공연하게 행해지던 체벌들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것들로 파생되었고, (일명 -앞으로 나란히-, -손 머리- 등 가벼운 것부터, 소송으로 까지 번지는 심각한 체벌까지)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강화되면서 체벌은 단지 체벌로써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쟁점에 하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취급되어지고 있는 체벌은, 현재 찬성과 반대의 기로에 놓여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팽팽한 접전 속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당장 체벌의 찬반을 확연히 정의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체벌은 체벌 그 자체가 아닌 우리나라의 풍속과 역사, 문화등과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며 교권과 인권, 그 모호한 경계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나의 입장에서 체벌을 가한다는 것은 막연한 공포와 수치

심 또는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 입장에 가깝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체벌의 관한 모든 상황을 적절히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므로 여러 사회적 기관과 객관적인 자료, 변화하는 의식과 문화 등을 고려하여 천천히 변화시킬 문제 인 것 같다.

체벌, 체벌은 더 이상 쉬쉬하거나 덮어두어야만 하는 문제가 아니다. 대대적으로 공개적인 모임을 갖고, 활발한 토론 등을 통해 천천히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유 단 비 ■ 군포시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홍진고 2학년 ■

체벌이란 무엇인가?

나는 아직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학교 안에서의 학생 체벌에 대해 이 글을 쓸 것이다. 하지만 체벌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그대로 이 글을 써 내려가고자 한다.

체벌이란 아직 사리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학생 체벌이라고 어른들은 대부분 말씀하신다. 그러나 요즘 인터넷뉴스, 네이버 게시판 등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체벌과는 전혀 다른 체벌이 언론에 뜨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몇몇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때리고 있다.

나도 중학교 때 까지 남자 영어 선생님께 따귀를 맞아가면서 수업을 배웠다.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고, 숙제를 해오지 안았다고 체벌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고 내 스스로가 느꼈다. 하지만 과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맞는 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다.

요즘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따귀를 때리는 면 등 선생님이 학생들을 때리는 사진 또는 영상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있다. 이에 반대로 학생이 선생님에게 때

리도록 권유 하는 장면,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욕하는 장면 등도 인터넷,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나는 솔직히 학교폭력이란 것이 있어서도 안되고,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것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학교 내에서는 사랑의 매라고 말 하지만 사랑의 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내가 중학교 때 겪었던 선생님의 체벌이 나중에 선생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비춰질까봐 두렵기 까지 한다.

체벌..그 두 단어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나는 학교 체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학교 아니 국가규정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두서없이 마음 가는대로 쓴 글이지만 체벌을 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했는지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정말 선생님과 학생들 둘 다에게 마음의 상처가 가지 않고 자기가 왜 맞는지 자신이 왜 체벌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서로 억울하지 않을 때까지 국가와 학교에서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조 용 수 ■ 대일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

김홍도의 '서당도'는 당에서 아이가 훈장님께 회초리를 맞은 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서당의 모습을 생생하게 잘 표현하였다는 평으로 현재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로 이러한 체벌이 오랜 시간 우리 민족과 함께한, 풍습과도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러한 체벌 문화는 그 기능을 다하기 보다는 역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직접 피부로 느끼는 학생들부터, 학부모님들, 교육 심리 전문가, 심지어는 교육 전선에 계시는 일부 선생님들까지도 체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책임' 만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와 군부

시대의 잔재로 인해 무엇이 잘못이고 혹은 왜 그러한 잘못을 했는지 보다는 우선 책임부터 지우는 식의 풍토인 것입니다. 이러한 체벌을 받은 학생들이 과연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이며 왜 잘못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그저 자신들이 질 책임이 두려워서 규율을 지키는, 단기간의 예방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 이러한 강한 체벌이 없을 때에 자율적으로 규율을 지킬 지도 의문입니다.

체벌을 가하는 교사의 주관 개입 또한 역효과를 내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상으로도 교사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정과 맞물려서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나타났습니다. 감정이 개입되어서 때를 이용한 체벌뿐만 아니라 언어를 사용한 간접 체벌, 손찌검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대화의 단절로 이루어져서 학교생활, 나아가서는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체벌은 교육의 한 수단으로써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책임을 질 줄 알며, 또 다시 그런 잘못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체벌은 객관적으로, 교사 임의가 아닌 상호 간에 정한 규율에 의해 인권이 존중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반성문 등의 자기 반성 시간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박 준 기 ■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1학년 ■

체벌: 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함. 또는 그런 벌.

위와 같이 선생님의 체벌은 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요즘 선생님들의 체벌은 다양하다. 정당한 체벌 '매' 부터 시작해서 부정당한 체벌 '폭행' 그 이상의 체벌들이 있다. 과연 정당한 체벌과 부정당한 체벌의 경계선은 어디까지일까? 과연 때린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이 학생이라면 학생은 학생이 아닌 동물과 같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건 나의 주관적인 생각인데, 강제적으로 때려서 못하게 하는 것보다 잘 타이르거나 그 잘못을 고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반 강제적인 방법을 활

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때린 선생님이 기억에 가장 잘 남고 나중에 생각하면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옛날이야기 이다.

요즘은 학생의 인권이 올라감으로 옛날과 같은 체벌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다. 때리고 강제로 시키는 선생님은 절대 존경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체벌은 체벌이고 폭력은 폭력이다. 절대 체벌이 폭력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하며 정당한 체벌을 받은 학생은 그 잘못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때리는 것만으로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적당한 체벌과 적당한 타이밍 적당한 관계 조성. 역시 적당하다는 말은 애매한 이야기일수도 있다. 학생마다 그 정도가 다르니까 말이다. 그 적당함을 알고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할 줄 아는 선생님이 이 시대에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체벌, 적당히 과하지도 적지도 않을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체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나의 주관적인 시점이었다.

박 혜 지 ■ 동화고등학교 2학년 ■

체벌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체벌을 찬성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이 각각 중시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체벌 찬성론자는 학생의 비행을 억제하기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바른길로 나아가도록 지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학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때' 를 든다고 한다. 하지만 체벌을 통해 학생을 변화 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학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학생은 신체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것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학생이 변화길 원한다면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교사는 종종 '맞아야 정신 차린다' 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체벌은 엄연한 폭력이다.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폭력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체벌을 단지 학생이 받는 '신체적 고통'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체벌은 학생에게 정신

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선생님에게 맞을 때 느끼는 수치심은 학생에게 큰 수치심을 줄 것이다. 또한 체벌은 강제적이고 타율적이기 때문에 학생의 반항심을 자극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

체벌로만 학생의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학생 개인의 문제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라면 먼저 학생과 진실한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학생을 이해해야 한다. 학생이 학교 교칙을 어긴 경우라면 학생의 잘못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칙이 너무 불합리하고 학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학생에게는 '역지사지'를 가르치면서 왜 정작 교사는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체벌부터 하는 건지 모르겠다.

교사는 학생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학생은 자유를 누리되 정해진 교칙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서로 노력한다면 체벌 없이도 안정된 학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박 천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미디어스쿨 3학년 ■

요즘 인터넷에 체벌이란 단어를 치면 체벌에 관한 법규 및 수 많은 동영상, 체벌에 대한 사건, 사이트, 카페들이 나온다. 청협 토론회에 체벌에 관한 주제를 두고 다루기전까진 나는 체벌에 대한 법규가 있는지도 몰랐을 뿐더러, 여러 많은 더 심각한 체벌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내가 중학교 시절 겪었던 그냥 매로 때려서 허벅지의 파란 멍이 든 정도의 체벌과 선생님께서 많은 친구들이 있는 복도에서 나에게 말했던 "네 부모가 널 그렇게 가르치디? 안 봐도 뻔하겠다." 라는 식의 날 쥐구멍으로 숨고 싶게 만든 모욕정도? 이것이 체벌이라고 생각했다. 선생님들과 어른들은 꼭 매로 때려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뼈가 부러지면 그건 좋지 못한 체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창 민감할 때 사춘기였을 내 중학교 시절은 맞아서 없어져 버리는 명보다 귀로 들어서 없어지지 않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마음속에 영영 사라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는 것 같다. 중학교를 자퇴했기 때문에 나에겐 학교란 기억이 적긴 하지만 학교에서 일어났던 체벌에 대한 기억은 많은 편이다. 아침부터 방과 후 까지 체벌의 모습은 끊이질 않는 것 같다. 지각을 하게 되면 우리학교는 야구부가 있었기 때문에 운동장 중앙에 엎드려뺨쳐를 해 야구 방망이로 맞았던 기억이 난다. 또 숙제나 준비물을 갖고 오지 않았을 때 사정없이 복도에서 허벅지와 종아리를 맞던 기억도 난다.

떠들어도 맞고 급식 줄을 잘못서도 맞고 담임선생님께 외출증을 끊고 점심시간에 간식 사먹으러 잠깐 슈퍼에 나갔다가 와도 학주에게 맞고 청소 제대로 못해도 맞고, 치마 교복 입었을 때에 종아리엔 맨날 여러 선들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다.

중학교가 남여공학이었는데 여자학생에게만 체벌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예를들어 겨울에 스타킹을 검은색을 신지 않았을 경우에 매를 맞게되었다. (커피색스타킹과 풀바지 치마 밑에 추리닝을 입는 행위도 안되었다.) 남학생의 경우는 꼭 벨트 안에 와이셔츠를 넣고 다녀야했고 아니면 체벌대상이 되었다. 한겨울에 추운날씨에도 교복위엔 잠바를 착용하면 안됐고 교복 마이 안에 가디건 조차 입으면 체벌 대상이 되었다.

한마디로 내 중학교 시절의 학교는 폭력뿐이었던 것 같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체벌들이 막무가내로 일어났으니까.. 선생님은 꼭 매로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나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체벌은 굳이 매가 아니라도 선생님의 손, 발, 체육시간엔 공이나 배드민턴 채와 수업시간엔 책과 칠판지우개 그리고 입에서 나온 담지 못할 여러 말들..... 솔직히 어디까지 선생님이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체벌인지 모르겠다.

언어적인 폭력으로 따진다면 개개인마다 다를 것이고, 매로 맞는다면 선생님과의 사이가 좋은 학생의 경우엔 정말 사랑의매로 불리워질 테니깐.. "난 체벌이 싫다!" 말로 할 수 있

는 건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다. 길거리에 많은 사람을 잡고 말하면 그 누구든 맞는 건 싫다고 할 것이다. 누가 몸에 고통을 즐기고 있을까? 맞는 건 싫지만 굳이 나에게 안좋은 체벌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체벌은 나쁘다란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때로 때리지 않아도 선생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체벌은 많기 때문이다. 화장실청소, 교실환경미화, 학교 30분 일찍 오기 등 이렇게 풀어나가는 선생님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이 하는 체벌이 다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학생이란 신분으로 체벌이 나쁘다고 싫다고 외치기엔 너무 많은 선생님들과 어른들은 그저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라 웃고 넘길지도 모를 일이다. 학생들이 체벌에 대응 할 수 있게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선생님과 대화하면 풀 수 있는 좋은 학교생활이라면 좋겠지만 많은 청소년이 체벌에 시달리고 뉴스보도, 인터넷, 체벌에 관하여 계속 홍수나듯 나오는 오늘날 어른들도 심각성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 정 승 ■ 성평등사회실현을위한청소년모임 /대원고등학교 2학년 ■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가끔씩 학생들의 인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한 행동을 하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는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발언을 하시고, 일이 점점 커지자 억지로 사과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서 정말 황당하고 화도 많이 난다.

체벌이라는 것이 적당히 사용되면 학생을 올바른 길로 바로잡아줄 수 있는 좋은 행위이지만,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오히려 학생을 빗나가게 만들고 가슴에 상처를 입히는 나쁜 행위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다.

체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하는 것이나 그런 벌'이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 사전에 나와있는 체벌의 정의는 약간 부족하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위만을 정의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체벌에는 '인격존중' 과 '사랑' 이라는 밑바

탕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필자도 동의하지만, 저 두개의 전제가 깔려있지 않으면 체벌이라는 행위는 단순한 폭행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도저히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없는,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을 깡그리 무시한 듯한 발언, 손찌검, 그 외의 행동들을 하고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사랑의 매였어.'라고 당당히 말하는 몇몇 선생님들 때문에 학생들의 가슴 속엔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고 신문에는 황당한 기사가 하나들 등장하는 것이다.

'역지사지' 라고 했다. 선생님은 학생의 입장이 되어, 학생은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 한번씩만 생각해보고 행동하자.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그렇게만 하면 학생은 잘못을 훨씬 덜하게 될 것이고 어찌다가 모르고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선생님 역시 앞에서 언급한 두가지의 전제가 깔려있는 체벌을 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다보면 나중에는 체벌이 필요없는, 그런 정이 넘치고 보기 좋은 사제지간이 될 것이다.

권 현 진 ■ 청소년학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2학년 ■

"아, 정말 짜증내! 재수없어!"

"우리 담탱이는 나만 갖고 그래!"

학창 시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선생님께 매 한 번 맞아보지 않은 학생은 극히 드물 것이다. 이럴 경우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억울한 표정을 짓거나 입 밖으로 내뱉기도 한다.

체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바람직하게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여기서 체벌과 그 효과에 대한 상관관계가, 체벌의 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체벌이 학습 효과와 학생 지도의 용이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여겨왔기에 체벌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져 왔고, 당연시되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체벌만을 강조하는 교육과 가르침은 오히려 어떻게든 체벌만을 면하면 된다는 그릇된 사고를 심어주지 않을까? 이 점은 체벌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체벌로 인해 학생들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아픔과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처를 받는다. 그 상처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 상처의 골은 더 깊어진다고 할 수 있다. 교사가 순간적으로 행한 체벌은 순간적인 효과만 가져올 뿐이다. 체벌로 인해 학생의 장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 상황은 체벌이 단순히 '체벌'이 아닌 '폭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여기서 체벌과 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체벌을 가하게 된 경위, 체벌을 가하는 방법, 체벌을 가한 신체부위와 상처 정도 등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교사가 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그게 지나쳐서 폭력으로 연계되는 고리의 첫 단추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 사회적 추세는 체벌을 용인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무조건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적절하게 기준을 정해서 체벌을 가하거나, 체벌 금지했을 때는 체벌 대신할만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할 것이고, 효과적인 교수방법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또 교사 스스로 스트레스나 화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체벌 대신 다른 대안과 방법을 잘 모색해본다면, 분명 우리 교육계는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하여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회적 승인을 받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분명,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웃는 세상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체벌은 있되,

폭력 없는 학교가 되길 꿈꿔본다.

민 정 혜 ■ 한국유스호스텔연맹 / 성신여자대학교 3학년 ■

대법원의 판례에 체벌이 불법행위 인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을 보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되어있다.

꼭 필요한 상황에 객관적인 기준으로 체벌이 행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기준이 무너져 내려 개인적인 감정으로 체벌이 행해지고, 교육을 위하여 행해진 체벌이어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나는 그 이유를 우리 모두가 체벌의 명확한 기준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해 생긴다고 생각한다.

올바르지 못한 체벌이 빈번해짐에 따라 불신은 점점 깊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 체벌은 무조건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다. 하지만 옛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도 잘못된 행동에는 체벌이 가해져 왔다.

그 당시와 지금 현재의 차이점을 보자면 그때가 오히려 체벌이 행해지는 기준이 확실했었다. 도리에 어긋나는 잘못을 하게 되면, 체벌을 하는 사람은 모자르지도, 넘치지도 않게 체벌을 가했고, 받는 사람은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며 받아들였다.

지금, 우리 모두가 체벌이 무엇인지 그 이해와 함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이해한다면 체벌을 행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될 것이다.

청협 회원단체 현황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직위	성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김석산	강서구 방화3동 801	2667-0471/0874	2667-0479
국민독서문화진흥회	회장	김을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산 60-1 국립중앙도서관 내	02591-4987	595-3870
국제청소년문화협회	이사장	김정훈	용산구 갈월동 71-6 대한빌딩 2층	716-0136/8	716-0139
그린해밀리·녹색소년단	총재	박정희	종로구 사간동 126-6 광성빌딩 2층	732-0890	732-0896
기독교청소년협회	이사장	정진해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200-10	063271-7020	271-9423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총재	정경석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2-9(1층2호)	02757-2248	757-2247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김익석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4층	738-3385/7	735-2707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	박현성	종로구 청진동 18 삼영빌딩 402호	735-8165	722-6623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	총재	한완상	중구 남산동3가 32	3705-3705	3705-3777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본부장	김찬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관 302호	763-9940	745-8827
대한청소년총효단연맹	이사장	김영희	청주시 상당구 수동 444-6	043221-2918	221-2919
대한YWCA연합회	회장	이행자	중구 명동 1가 1-3	774-9702/7	774-9724
비로자나청소년협회	회장	김봉갑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02942-0635	942-0637
삼동청소년회	이사장	김형두	전북 익산시 영등동 842-2 3층	063834-0676	834-0677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이사장	김운희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3층 311호	02727-2089	755-7686
성산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최성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413-3 대성빌딩 401호	032438-4333	421-4783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	총재	강석규	강서구 방화3동 801 국제청소년센터 2층	2662-7360	2662-7361
아미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	이진봉	강남구 역삼동 652-16 카이로빌딩 5층	567-2940-1	567-5451
아이섹코리아	이사장	노인환	성동구 홍익동 298 우림벤처타운 302호	2296-9376	514-7650
아이코리아	회장	김태련	송파구 장지동 45	431-0685	431-0684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최선정	영등포구 당산6가 121-146	2634-8211/4	2671-4177
엑스포과학소년단	총재	이강로	대전시 유성구 도용동 3-1	042866-5262	866-5259
오운문화재단	이사장	구광시	종로구 통의동 35-34 코오롱빌딩 5층	732-5059	732-5052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회장	최해상	울산시 남구 옥동 336-2 근로청소년복지회관내 2층	052276-5404	266-3404
원불교청년회	회장	남궁문	동작구 흑석동 1-3 원불교서울회관별관 228	813-3316	813-331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삼열	중구 명동2가 50-14 유네스코회관 916호	755-9068	755-9069
유엔한국학생협회	지도교수	박재영	서초구 서초2동 1355-8 중앙로알오피스텔 206호	522-8346	597-6770
인천가톨릭청소년회	이사장	최기산	인천시 중구 답동 3번지 가톨릭회관	032766-1318	766-1368
청소년과사랑사랑	대표이사	양종수	강북구 미아3동 226-71 2층	986-7474	985-7472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이사장	김경애	서대문구 창천동 114-9	338-7480	3141-9339

청소년지도연구원	원장	정하성	대전시 중구 중촌동 99-3	042255-6227	257-6054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문용린	서초구 서초동 1484-13 성훈빌딩 2층	585-0098/3	585-0038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총재	김종식	종로구 수송동 46-22 조계사문화교육관 1층	723-6165/6	723-6167
한국4-H본부	회장	김준기	강동구 명일동 48-1 한국4-H회관내	428-0451/3	428-0455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정숙	종로구 안국동 163 걸스카우트회관	733-6801/7	738-3013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이사장	정상복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관 608호	763-8776	744-2748
한국라보	이사장	이재정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공의장" 20호	736-0521	359-0527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이사장	류정열	종로구 당주동 5 로얄빌딩 930호	738-1501	732-5843
한국복지재단	회장	김석산	중구 무교동 95 한국복지재단빌딩 11층	777-9121	756-4256
한국불교청년회	회장	김상백	중구 장충동 2가 산 14-48 마음의 전화	2265-8858	2265-8859
한국BBS중앙연맹	총재	이명범	강남구 역삼1동 705-29	567-1882	567-6343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이원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6335-2000	6335-2020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회장	유주영	강서구 방화3동 801 국제청소년센터 2층	2663-4164	2661-4105
한국아이티청소년단	총재	남궁석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1-5 상지빌딩4층	02558-5048	552-9344
한국우주소년단	총재	이상희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진학기획빌딩4층	739-6369	722-6455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총재	이승훈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현대빌딩 408호	725-3031/3	725-3113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회장	김진숙	강서구 방화3동 801 국제청소년센터 2층	2665-6717	2665-6312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김영수	중구 신당 2동 405-32 청파빌딩 3층	2238-0702-4	2248-0709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총재	김두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17층	569-7231	569-7228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이사장	이만수	동대문구 용두2동 119-15 유성빌딩 206호	925-5112/3	928-5366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이사장	조경희	강서구 방화3동 801 국제청소년센터 2층	2662-6152	2664-6153
한국청소년선도회	회장	박부일	동대문구 휘경1동 71-11번지	2216-2472/4	2216-2475
한국청소년수련진흥회	이사장	이찬하	영등포구 여의도동 17-3 삼환가류 5층	782-6086-9	780-7139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	회장	김영철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92-7 신흥빌딩 3층	488-1728	488-1703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이사장	김상원	용산구 청파동 1가 176-6 성화빌딩 4층	718-8226	718-8219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차종태	동작구 신대방동 396 보라매공원내	841-9291	845-8138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	문상주	중구 수표동 27-1 서울시립청소년회관	2273-3000	2273-3001
한국청소년인권센터	이사장	강병연	광주시 서구 쌍촌동 1268	062224-5525	233-1318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	김병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46 임오빌딩2층	334-0080	334-5885
한국청소년지도자연맹	총재	박승남	강서구 방화3동 801 국제청소년센터 2층	2665-6282	2665-6312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총재	이정화	관악구 봉천동 1687-22 한국해양소년단연맹회관	886-8522/4	886-8521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회장	이수덕	구로구 고척동 38-8 보광빌딩 4층	2618-2124	2618-2129
한국환경청소년단	총재	박용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당동 863-3(2층)	031-970-0404	031-970-0000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	김윤수	중구 소공동 117	754-7891/5	774-8889
한사랑청소년광장	이사장	조송자	서초구 반포1동 30-2 가든빌딩 301호	596-1221	537-1454
홍사단	이사장	구치모	종로구 동숭동 1-28	743-2511/4	743-2515



8기 청소년회의 위원 현황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8기 청소년위원 현황

직책	성명	소속 및 학년
의장	최리나	청소년학과, 순천향대 2학년
부의장	민정혜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성신여대 3학년
부의장	권용경	청소년학과, 명지대 4학년
총무	최윤근	서일대 1학년
서기	박혜지	동화고 2학년
기획분과위원장	조민지	대한YMCA협회, 명지고 2학년
홍보분과위원장	조만근	홍사단, 대진대 1학년
교육분과위원장	이정승	성평등사회실현을위한청소년모임, 대원고 2학년
위원	장태성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선정고 2학년
	유단비	군포시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흥진고 2학년
	박은혜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중대부중 3학년
	이은송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중대부중 3학년
	이광민	공개모집, 서일대 1학년
	김정현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영동고 2학년
	배준섭	한국청소년지도자연맹, 경기고 2학년
	김태청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은일정보고 2학년
	임수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양정중 3학년
	송이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동남고 2학년
	오영탁	공개모집, 염광고 1학년
	이정우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중앙정보고 2학년
	송병준	청소년학과, 명지대 1학년
	권현진	청소년학과, 순천향대 2학년
	박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미디어스쿨 3학년

직책	성명	소속 및 학년
위원	오문식	공개모집, 강서고 1학년
	최세영	한국유스호스텔연맹, 동덕여대 3학년
	김도현	한국스카우트연맹, 대일고 3학년
	조용수	공개모집, 대일외고 2학년
	정득기	공개모집, 한서대 3학년
	이아라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광희중 3학년
	조희주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동남고 2학년
	이슬기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동남고 2학년
	이보람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선정고 2학년
	서영은	성평등사회실현을위한청소년모임, 경북여고 2학년
	조성민	공개모집, 대신고 2학년
	손은미	한국 4-H본부, 경북여상 2학년
	김송현	대한YMCA협회, 청주대 4학년
	이수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진명여고 2학년
	박준기	공개모집, 한국게임과학고 1학년



제8회 청소년 대토론회

- 제별로 상져받은 교실 -

발 행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발 행 인 : 김 석 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편 집 인 : 신 흥 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최 리 나, 권 용 경, 민 정 혜, 유 단 비(청협 청소년회의 위원)

발 행 일 : 2006년 8월 19일

주 소 : (157-85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01 국제청소년센터

대표전화 : 02-2667-0471/0874 전송 : 02-2667-0479

홈페이지 : www.koreayouth.net

전자우편 : ncyokway@chol.com

